

‘남도 바닷길 캠핑대전’ 열린다

여수·순천·광양·보성 캠핑장
8~11월 12회...각 회 36팀 모집
문화공연·포트락 파티 등 행사도



“남도바닷길에서 특별한 체험 만끽하세요.”
여수시 남도를 비롯해 순천과 광양, 보성의 유명 캠핑장에서 오는 11월까지 ‘남도바닷길 캠핑대전’이 열린다.

‘남도바닷길 캠핑대전’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중 6관역 프로그램으로 남도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캠핑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1월까지 여수, 순천, 광양, 보성에서 각각 3차례씩 총 12회 개최된다.

개최일자와 장소는 13일 보성군 어울마당을 시작으로 ▲19일 여수시 남도캠핑장 ▲20일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 ▲26일 여수시 남도캠핑장 ▲27일 보성군 어울마당 순으로 진행된다.

9월에는 ▲2일 여수시 남도캠핑장 ▲3일 광양

시 백운산자연휴양림 ▲17일 보성군 어울마당 ▲24일 광양시 백운산자연휴양림에서 개최된다.

10월에는 ▲21일 순천시 주암오토캠핑장 ▲28일 순천시 주암오토캠핑장에서 열리며, 11월에는

▲24일 순천시 주암오토캠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모집 인원은 회차별 36팀이며, 소정의 참가비를 내면 캠핑장 1면과 지역특산물 쌀과 돼지고기, 수산물 등이 제공된다.

캠핑장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캠핑 첫날은 대동놀이, 문화공연, 장기자랑, 별자리해설, 서로 음식을 나눠 먹는 포트락 파티, 웰니스 명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아이들을 위한 SI 모션 인식 게임장도 상설 운영돼 즐거움을 더하게 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이들은 남도바닷길 캠핑대전 홈페이지 확인 후 실시간 예약하면 캠핑장을 선착순으로 배정받을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캠핑대전은 캠핑장에 쓰레기만 남기고 가는 캠핑문화를 개선하고 지역과 캠핑객이 공생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기획했다”면서 “캠핑 참가자들이 함께 즐기고 나누며 아름다운 남도바닷길을 만끽하는 특별한 체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곡성섬진강천문대.

곡성섬진강천문대 ‘여름철 별자리 교실’

10일~13일...초중생 가족 대상

곡성섬진강천문대에서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여름철 별자리 교실’이 열린다.

여름철 별자리 교실은 ▲우주 호기심 탐구 교실 ▲과학교구제작 체험교실 ▲우주로의 초대 등 총 3가지 테마로 진행된다.

‘우주 호기심 탐구 교실’에서는 과학 마술 등을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는 시간을 갖고, ‘과학교구제작 체험교실’에서는 VR 안경, 에어로켓, 회전 별자리판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우주로의 초대’에서는 4D&VR 융합 상영관에서 천문 우주 영상물을 관람하고 망원경으로 여름철 별자리와 토성, 달, 백조자리 이중성 등을 관측한다.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섬진강천문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 대상은 초중학생 또는 중학생이 포함된 가족이다. 전화 접수를 통한 선착순 정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

곡성섬진강천문대 인근에는 대표 관광지 곡성섬진강기차마을, 아름다운 섬진강을 따라 이동하는 레일바이크, 어린이들의 시원한 놀이터 압록상사수, 자연 속 최고의 피서지 도림사 계곡 등 다양한 여행지가 밀집해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다양한 과학문화체험과 가족과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기원 기부 줄이어

각 단체 지정 기부금 전달식
전기장 입장권 갖기 약정 서명도



노관규 순천시장 등 공무원들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 구매 약정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세계인의 정원축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2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시민과 단체들의 염원과 열망이 기부로 이어지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정 기부금 전달식과 전기장 입장권 구매 약정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 200만원, 순천시어린이집 연합회 620만원, 순천시 여성단체협의회 100만원, 풍덕동 통장 협의회와 주민자치회에서 각각 100만원을 기부했다.

또 전 시민 입장권 갖기 사전 붐 조성을 위해 순천시장 및 순천시 간부 공무원,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및 간부 공무원들이 선두주자로 입장권 구매 약정에 서명했다.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 관계자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시민, 단체 등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만큼 자발적인 기부 문화 확산을 기대한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순천농협은 1억 5000만원 상당의 입장권 구매를 약정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보성군 차문화 멀티플렉스 ‘붓재’ 큰 인기

방문객 2배 증가...6일 작은음악회
보성 멀티플렉스인 ‘붓재’가 핫플레이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

붓재는 연면적 4만9430㎡ 규모로 1층에는 보성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보성역사문화관이, 2층에는 차 전문 카페인 ‘그린다향’과 보성

차 관련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린마켓’이 입점해 있다.

지난 7월 말 기준 ‘붓재’ 방문객은 4만3000명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보성군이 ‘붓재’ 활성화를 위해 ‘그린다향’에 빈백 소파를 마련하고, LED 전광판을 통해 카페와 마켓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한 게 주요

했다는 분석이다.

군은 특히 차 전문 카페인 ‘그린다향’만의 매력 향상을 위해 녹차팥빙수, 그린티에이드, 말차라떼, 그린티스무디 등 다양한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했다. 또 고객 유치를 위해 건물 외벽에 ‘cafe’ 사인물과 ‘미디어 글라스’를 설치해 영상과 불거리를 제공했다. 보성군은 6일부터 작은 음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공연은 6일, 13일, 14일, 20일 등 총 4회에 걸쳐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구례군 하반기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구례군은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2022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 시행한다.

군은 올해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75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16대를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120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8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차량은 구례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중 건설기계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t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 3중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오는 12일까지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방문 접수, 인터넷,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광양에도 여순사건 위령탑 조성한다

시, 부지 선정 용역 착수

여순사건 당시 여수·순천과 함께 큰 피해 지역이었던 광양에도 위령탑이 조성된다.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맞춰 위령탑 조성을 주요 골자로 한 기념사업을 계획 중이다.

여순사건 당시 광양 백운산에서는 무고한 많은 주민이 군경에 의해 희생됐다.

하지만 사건 현장인 순천, 구례에는 위령탑이 있지만, 광양에는 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는 위령탑, 안내판 등 추모 시설조차 없는 형편이다.

2006년 순천팔마체육관, 구례현충공원에 위령탑이 건립돼 이곳에서 각종 추모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에 시는 위령탑을 추모 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부지 선정 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 2일 설명회를 열어 후보지를 소개하고 부지 선정 조건, 향후 일정 등을 설명했다.

부지 후보지는 접근성, 역사성, 규모, 공유지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후보지는 유당공원, 전남도립미술관 인근, 우산공원, 백운만천공원, 광양문화원, 동천내 하천섬공원, 마동저수지공원, 시청 앞 시민광장 등 8곳이다. 시는 유족,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8월 부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여순사건 위령탑 설치 등 추모사업을 바탕으로 지역과 시민 화합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